

# 사명대사 열반 400주기 추모대제

## 밀양 표충사서 10월 9~10일 영산재 및 위령제 등

임진왜란 승병장 사명 대사(1544~1610)의 열반 400주기를 맞아 밀양 표충사에서 10월 9~10일 '나라구하기 사명성사(西溟聖師) 열반 400주기 추모대제'가 봉행된다.

10일 오전 9시 시작되는 공식추모행사는 성균관유도회총본부가 주관하는 다례제, 표충사가 주관하는 추모법회, 조계종 영산작법학교가 주관하는 영산재, 신시에술단이 주관하는 위령제, 전국 불교합창단이 나서는 합창제 순으로 진행된다.

이에 앞선 9일 오전부터는 사명 성사 백일장과 사명 성사의 선양을 주제로 한 학술대회가, 저녁에는 태진야, 현철, 현숙, 정수라, 최진희, 박현빈, 다비치, 사이니 등이 출연하는 자비음악회가 개최된다.

8월부터 표충사 유물관과 전시장에서 열린

'사명성사 영정 및 유물 특별전'이 열리는 사명 성사의 장삼과 가사 등 유물이 전시된다. 표충사 전시장과 밀양 밀리내 갤러리에서는 표충사 풍경 사진전도 열린다. 10월 8~10일에는 성인과 교양 대상 템플스테이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서울과 밀양 표충사에서는 각각 '사명성사 가르침의 현대적 의미와 계승 방안'과 '사명당 유정의 구국활동에 대한 평가'를 주제로 학술행사가 열린다. 특히 열반 400주기를 맞아서는 사명 성사가 전란 당시를 기록한 일지인 <승운대사 분충서난록>이 해설·배포될 예정이다.

한편, 표충사는 1744년 영조 임금의 왕명에 의해 서산·사명·기허 성사를 모시고 제향을 올려왔다. 매년 춘추(음력 3·9월) 봉행되는 전통대제는 올해 534회를 맞았다.

조동섭 기자



사명대사영정

### ■ 사명대사는...

사명 대사는 임진왜란 당시 의승병을 일으켜 나라를 지킨 인물이다. 평양성을 탈환해 임진왜란의 전세를 역전시킨 것을 비롯해 울산성 전투, 예교 전투 등에서도 공을 세웠다.

조선인으로는 처음 서생포 왜성에 들어가 적장 가토 기요마사와 3차례 회담을 했다. 이를 통해 명일조약(조선분할정착)을 무효화시키고 재점락 계획(징유재란)을 알아내 선조 임금에게 상소했다.

이후 1604년 탐작사로 일본에 건너가 일본의 정황을 살피고 조선인 송환을 이끌어 내는 등 혁혁한 공을 세웠다.

조동섭 기자

## 전통사찰 방재예측 시스템 구축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2005년 불길에 휩싸여 숯덩이가 패버린 낙산사를 바라보는 이들의 심정은 참담했다. 2008년에는 남대문이, 2009년에는 향일암이 불탔다. 많은 이들이 참담함과 비통함을 감추지 못했다.

화재 이후 복원된 낙산사에는 새로운 방재 시스템이 들어섰다. 홍예문에서부터 후문에 이르는 경내 산책로 곳곳에는 화재 발생 시 있을 수 있는 불꽃과 연기, 온도, 습도 등 미세한 변화를 감지해 통제센터에 자동으로 알려주는 센서가 설치됐다.

원문보전 주변에는 산불이 건물에 옮겨 붙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0~30m 높이의 물을 뿜어 불길을 차단하는 분수와 같은 시설인 수막시스템이 설치됐다. 원통보전, 보타전, 해수관음전 등 모든 건물에는 소화기와 함께 CCTV와 열감지기, 연기감지기 등 첨단 장비가 갖춰졌다. 해수관음상 주변에는 360도 회전

지난 10년간 전국 사찰에서는 600건이 넘는 화재가 발생했다. 올해에만 33건의 화재가 삼보정재를 불태웠다. 화재원인은 전기(254건, 40%)와 방화(244건, 41%)가 대부분이었다. 조계종 문화부가 취합한 문화재 도난현황도 15년간 54건에 달했다.

참가자들은 화재와 도난으로부터 문화재를 지키려면 방재 예측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효탄 스님은 "전통사찰 방재의 문제점은 화재·도난 발생 후 대응하는 사후 처리 방재 시스템에 있다"며 "사람에 의한 인재, 전기 화재로 인한 대책으로서 현재의 시스템은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스님은 "예측·예방적 방재 시스템은 사찰 관리자도 하여금 방재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키는 것에도 있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전통사찰 방재 예측 시

### 실측·기록하는 정책돼야

### 디자인 고려해 전기시스템 노출

되는 감시카메라를 통해 화재를 감시하게 됐다.

이와 함께 경내에는 소방차 1대가 상시 배치됐다. 야간에는 순찰요원 3명이 경내 곳곳을 살핀다. 또, 속초소방서와는 주기적으로 소방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방재 예측 시스템이다.

조계종 문화부(부장 효탄)는 9월 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전통사찰 방재 예측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문화부장 효탄 스님이 '전통사찰 방재 예측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주제로 기조발제 했다. 엄승용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장은 주제발표 '전통사찰 및 사찰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 현황과 문제점'을 통해 방재 정책의 지속성을, 윤명오 한국화재소방학회(서울시립대 교수)는 '전통사찰 방재 예측 시스템 구축 방안'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강조했다.

조동섭 기자

스님 구축을 위해 △종단의 방재 인식 강화 △정관계의 지속적인 관심 △방재 전문인력 양성 △방재 예측 시스템의 연구 개발 등을 제안했다.

엄승용 문화재정책국장은 "방재 대안이 수립되면 어떤 희생을 감수해서라도 지켜져야 한다"며 소유자 및 관리자 등의 안전한 의식을 질타했다.

엄 국장은 "일선 사찰 중에는 사찰 관리자의 기기 숙지 미흡으로 오작동이 발생하고 심지어 경보기를 꺼놓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문화재청은 문화재별 특성에 맞는 방재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효율적인 문화재 방재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문화재 원형 보존의 최우선 △문화재 보존환경 및 관람환경을 고려한 방재시스템 설치 △방범·경보설비의 특수화된 설비 등을 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조동섭 기자

## 태고종 총무원장 불신임안 부결

### 종회의장 영우 스님 선출

태고종 중앙종회가 총무원장 불신임안을 부결했다.

태고종 중앙종회(의장 원봉)는 9월 16일 대전 스파피아호텔 동백홀에서 제103회 임시중앙종회를 개최했다. 총 53명의 종회의원 중 44명이 참석한 이날 중앙종회는 총무원장 인공 스님에 대한 불신임안과 △총무원법 개정안 △조정법 개정안을 다뤘다.

종회 개회에 앞서 종정 해초 스님은 선시(宣示)를 통해 "총무원장에 대한 종도의 불신이 팽배해 갈등이 야기되는 것은 대단히 안타깝다"며 "총무원장 사퇴 요구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돼 서면으로 동의했고 총무원장, 종회의장과 사정원장 등 3원장이 만나 슬기로운 해결방안을 찾아 중앙종회에서 처리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이번 종회에서 경륜을 발휘해 달라"며 원만한 사태 해결을 당부했다.

이날 인공 스님은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 다만 종단 부채 문제와 관련한 문제 해결 후에는 용퇴할 각오가 돼있다"고 말했다.

이런 사태는 봉은사 연지원(납골당) 공사 대금과 관련한 부채문제와 제도개혁 연기, 2010영산재대회 행



9월 16일 스파피아호텔에서 열린 태고종 임시중앙종회에서 생각에 잠긴 인공 스님.

사비용 관련 소송 등으로 인해 촉발됐다.

인공 스님은 이날 "운산 스님이 '2010년 3월 경 부채 문제를 해결하겠다. 천중사를 처분해서라도 종단 빚을 갚겠다'고 약속했고, 이후 세차례 연기 요청이 들어와 최종 10월 30일까지 부채를 해결하는 것으로 도장을 찍어줬다. 9월 9일 서울중앙지검에 민·형사 사건으로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공 스님은 "종단 제

노덕현 기자

도개혁은 반대가 아닌 시간을 갖자는 것이고, 신도회가 지불하지 못한 2010영산재 행사비와 관련해 행사업체들이 종단에 제기한 소송은 종단에 법률적 책임이 없다는 판단 하에 현재 소송이 진행중이다"고 말했다.

이어 진행된 불신임안투표는 비공개로 진행돼 찬성 32, 반대 12로 부결됐다. 총무원장 불신임안은 종회 재적인원의 2/3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인공 스님은 부결 직후 "3원장이 함께 협의를 해서 종도들이 실망하지 않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종회는 △부위원장 2명에서 1명으로 정수 제한, 실장제 폐지, 총무원 부서 5개로 축소를 골자로 하는 총무원법 개정안 △현행 종회의원에겐만 부여하는 선거권을 지방종회에서 선출된 총무원장 선거인단까지 확대하는 총무원장 선거법 개정안 △조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조정법 개정안을 자구 수정을 전제로 통과시켰다. 자구 수정 및 세부 시행령 등은 12월경 개최 예정인 차기 종회에서 다루기로 했다.

이날 종회의장 원봉 스님은 건강을 이유로 사의를 표명했다. 후임 종회의장에는 수석부의장인 영우 스님이 만장일치로 선출됐다.

노덕현 기자

## "대중의 뜻이 아니다"

### 대책위, 백양사 대중 명의 성명서 소동 진화

백양사가 대중 명의 입장·성명서를 통해 법규위원회에 고불총림 자동해제건을 심판 청구한 의연·무공 스님 축을 강하게 비판하자, 고불총림 수호 대책위원회가 "대중의 뜻이 아니다"라며 진화에 나섰다.

백양사(주지 시몽)는 9월 14일 경내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불총림 지정과 총림 자동해제 심판청구 관련 본종법규위원회 경위 및 백양사의 입장'과 '고불총림 자동해제 심판청

구에 관련한 일부 승려들의 자성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에 대해 고불총림 수호 대책위원회(위원장 압도, 이하 대책위)는 같은 날 '백양사 기자회견에 대한 고불총림 수호 대책위원회 입장' 제하의 성명서를 통해 "14일 백양사에서 개최된 기자회견은 주지 시몽 스님과 총무원 보연 스님이 개인적 입장을 대중의 입장인 양 방한 것"이라고 밝혔다.

조동섭 기자·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 의정부교도소 방문 "세상을 살다보면 본의 아니게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소자들은 여기 계시는 동안 사회 나가서 땀이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도록 마음의 수양을 닦아 주십시오." 민족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9월 13일 경기 의정부교도소(소장 서병석)를 찾아 교정인 불자들과 재소자들을 격려했다. 노덕현 기자

산중 민족문화큰장려

僧市

# 팔공산 승시

www.dgbbbs.co.kr

기간 | 2010. 10. 1(금) ▶ 10. 3(일) 오전11시~오후9시30분

장소 | 팔공산 동화사 옆 야외자동차 극장

팔공산 승시(僧市)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스님들이 물물교환을 위해 열었다고 전해 내려오는 승시! 처음으로 재연하는 이 승시가 10월 1일부터 3일까지 팔공산 동화사 옆 씨네80자동차 극장에서 열립니다. 전국의 사찰이 간직해온 60여가지 전통문화를 한자리에서 보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주최 대구광역시·동화사

주관 BBS 대구불교방송 (053)427-5114

팔공산 승시(僧市)는 초조대장경 천년을 기념하고,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성공을 기원합니다! |